



강남구청, 탄소마일리지 제도 '순항중'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비용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내 지자체 중 선두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강남구가 본격적인 '탄소 마일리지 제도'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강남구는 최근 에너지기본 조례를 개정해 탄소 마일리지 비용 지원에 대한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입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가입자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입력하는 데 따른 객관성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회사와 온 라인으로 연결하는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강남구를 찾아 탄소마일리지 제도 현황을 들어봤다.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 마일리지 비용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구온난화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의 하나인 '탄소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자(가입자)가 에너지절약을 한 후 절약량 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인트로 발급받아 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월 서울 강남구가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키로 한다고 발표하고 이의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송필석 강남구청 에너지팀장은 "당시 강남구의 '탄소 마일리지 제도' 참여율은 법적 의무대상 39개소와 공공기관 등 강남구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2%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18일 현재 3만3638세대가 가입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구의회 심사를 통해 공포했다.

강남구의 이번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탄소 마일리지 비용지원과 함께 마일리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는 우선 각 사용자가들이 에너지가계부 작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등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10%의 에너지절약을 달성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40만 톤에 달한다.

강남구의 이번 에너지조례 개정안을 보면 주택,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사용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마련된 e-에너지가계부에 에너지사용량을 작성하고 에너지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에 맞춰 포인트를 발급받고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탄소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사용자는 이를 문화체육시설 이용권, 공용주차장 이용권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강남구가 개정한 에너지 조례안을 보면 일반주택(주민)의 경우 온실가스 10kg 당 1p, 공동주택,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은 온실가스 감축 100kg 당 1p로 계산되며 일반주택에는 1포인트당 500원으로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단체별 온실가스 감축 순위를 매겨 운영금으로 포인트는 100만원, 2위~5위는 50만원, 6위~10위는 20만원씩 각각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마일리지 지급 시기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급토록 규정했으며 지급기준도 마일리지 부여 기준일 현재 거주자로 정했다.

송필석 팀장은 "올해 일반주택에 5000만원, 기업 등에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 규모를 발행하는 한편 내년에는 1억원, 2010년에는 1억5000만원 규모로 발행하고 이 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마일리지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객관성 부재 해소

강남구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서 사용자가 직접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는 데 따른 객관성 검증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마일리지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서 에너지회사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이를 검증하게 된다.

특히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으며 회원가입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보안시스템도 강화했다.

송필석 팀장은 "지금까지 e-에너지가계부 작성시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상수도사로부터 사용량을 자동으로 내려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가입자가 일일이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객관적 검증이 어려웠지만 이번 운영 시스템 개발로 객관성 부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남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한전남부사업소, 대한도시가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에너지공급업소 협약을 맺었다.

강남구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마일리지제 운영 프로그램을 가동해 올해 말까지 세대별 에너지사용량을 업로드하고 내년 2월부터 탄소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e